

결혼용품 실용화 새바람 분다

‘결혼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구입하겠다’,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한 물건을 사겠다’는 등 실용적으로 결혼용품을 준비하는 알뜰파 신세대가 많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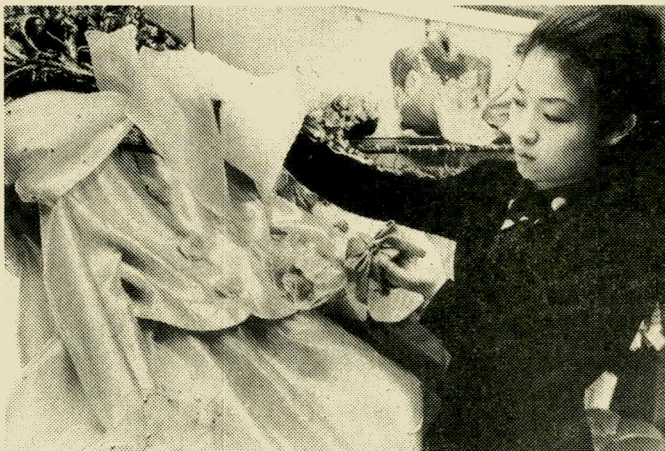
최근 이런 알뜰파 신세대 예비부부들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실용적인 결혼용품 생산 판매도 부쩍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는 4월 결혼식을 올리는 전화정(28·서울 강남구 개포동)씨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화장대와 문갑을 마련하지 않고 2단짜리 원목 서랍장과 큰 거울을 따로 구입해 화장대 대신 쓸 예정이다. 7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원앙침도 준비하지 않기로 했다.

결혼대행·혼수용품판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웨딩월드 이인규씨는 “혼수용품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가운데 화장대, 원앙침 등을 갖추는 이들은 10% 안팎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실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바로크가구 진명호 영업부장은 “몇년 전만 해도 혼수 가구품목으로 화장대, 문갑은 빠지지 않았는데, 요즘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됐다”면서 “결혼 필수품목이기 때문에 장만한다기보다는 실용적이냐 측면을 고려해 사는 편”이라고

평소 쓸만한 예복·구두 구매 구색맞추기 문갑·원앙침 시들



리본·꽃 등 화려한 장식들을 쉽게 떼낼 수 있게 핀으로 처리한 예복들이 등장했다. 목 소매 단추 부위 꽃·리본을 떼면 평상복이 된다.

장철규 기자

이 늘어난 것 같다”고 최근의 변화추세를 진단했다.

이런 변화는 결혼용품을 구입하는 주체가 부모 중심에서 예비부부 중심으로 바뀌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젊은층들이 현대감각에 맞지 않는 고전적인 화장대, 빨강·초록의 원앙이불 등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스식개이 스저아 그르으 주비하

던 것도 옛말이다. “필요할 때는 이웃에서 빌려쓰겠다”는 예비부부들 때문에 두벌뿐인 부부용 수저, 부부용 찻잔, 부부용 밥그릇이 인기를 끌고 있다. 결혼식 직후 신부가 입던 예복이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단순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변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부들이 예전처럼 결혼식날

원하지 않는걸요. 예복코너를 찾는 예비신부 10명 가운데 9명은 결혼식이 끝나고도 계속 입을 수 있는 옷을 찾습니다.”

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부예복 판매를 시작한 예복전문 업체 ‘러보오’의 판매원 정종숙씨의 말이다. 화려하기로 유명한 ‘러보오’의 올해 예복 신제품들은 체크무늬에 심플한 디자인이 주류를 이룰 정도로 크게 변했다. 실제로 알뜰파 예비부부들을 겨냥해 예복생산 업체들은 결혼식날의 분위기를 위해 화려한 리본이나 꽃을 장식했다 하더라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핀이나 끈으로 처리해 식이 끝나면 바로 떼어내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주로 선보이고 있다.

평상시에는 신기 어려운 화려한 장식을 달아 결혼식 뒤 신발장에 처박혀 있기 일쑤였던 예복도 ‘실용과 예비신부’의 요구에 맞춰 변화했다. 비제바노, 에스콰이아 등 제화업체들이 올해 앞다투 내놓은 신제품 예복은 화려한 꽃장식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처리해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게 했다.

이런 변화는 아직 웨딩드레스, 보석 등 결혼용품 전체에까지는 확산되지 않았지만 실용적인 젊은 세대의 등장과 함께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